

이순신의 전쟁수행에 관한 인간학적 고찰

金 璘 純*

1. 시작하는 말
2. 불멸성의 내적 기반으로서 확장적 사고
3. 이순신의 전투행위와 그 성격
4. 이순신의 전투행위의 의의: 인간적 삶의 실현과 역사성

1. 시작하는 말

전쟁은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발생한다.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 동기,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행위는 일종의 정치행위라 할 수 있다. 정치행위는 그것이 훌륭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로 인해 오래도록 기억된다.

우리 역사상 이순신만큼 자신의 존재를 불멸의 위치에 올려놓은 사람이 많지 않다. 이순신은 자기 삶의 주목적을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한 인물이다. 공적 가치의 실천으로 그가 조선, 더 나아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존립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누구도 그의 위대

성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그런 만큼 이순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 중에는 이순신의 행위와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그의 행위의 공동성을 강조한 것이 많다. 물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위대한 행위의 주인들은 후세로 갈수록 현상(現像)의 세계, 즉 인간사 영역(人間事 領域)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간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인물로 그려지기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민족적 영웅이나 성웅으로 재탄생한다. 이는 “국민 여론의 검증을 받아 결정된 영웅은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국민을 단결시키고 이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의 원동력이 된다”¹⁾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법은 ‘자기를 상실한’ 공적 인간만 강조함으로써 개인성은 제거하였다. 인간다운 면모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순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이순신의 인간적인 고뇌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사랑, 효심, 충성심 등 내면적 가치를 드러내려 했지만, 그것들은 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²⁾는 한계가 있다.

필자는 기존의 연구가 이순신 개인의 실존적 차원을 조명하는데 소홀했다는 인식아래 그것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 이순신이라는 인간 자체를 탐구할 것이다. 이 작업은 타인을 전제로 하는 “인격적 행위”³⁾라는 개념을 통

1) 장학근, “이순신, 원균의 시대별 여론 추이와 평가”, 『동서사학』 5권, 1999.

2) 예를 들면 김성영의 논문은 백성에 대한 사랑과 국가에 대한 충,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를 다루는데 그것들의 교육적 가치를 추출해내었다(김성영,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효 사상: 대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소고』, 순천향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03 참조(여기서는 <http://www.e-sunshin.com>에서 인용(검색일, 2008.3.4)); 김훈 역시 이순신의 인간성을 그리고 있지만, 그것은 부하사랑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중심을 이룬다(김훈, 『칼의 노래』, 생각의 나무, 2001 참조).

3) 한나 아렌트는 (정치)행위를 행위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인격적 행위로 본다. 본고에서 필자는 인간의 실존양식 중 하나인 ‘드러냄’의 행위를 통해 이순신의 공적 행위를 구성한다.

* 동국대학교 강사

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간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현상학적 인간학의 관점(phenomenological humanics)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는 이순신의 전쟁수행이 타인과 함께 하는 협력행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근본적으로 인격이라는 개념은 상호관계성의 이념을 함축한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 확실한 생물학적 존재는 각자의 인식이 다른 사람의 인식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만큼 서로 결합되어 있다.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인격은 타인을 전제로 말과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바, 인격을 형성하는 데는 '외적인' 행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의 심성적 가치도 필요하다. 심성적 가치는 외적 행위의 토대가 되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심성에 공명하여 그를 감화시킨다. 이순신이 획득한 불멸성은 이 내면적 세계를 바탕으로 한 위대한 행위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행위가 불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적 가치를 수반해야 한다. 자신만을 위한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기억되어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없다. 불멸성은 개인성과 공동성을 함께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개인성과 공동성, 이순신의 내면적 세계와 외적 행위를 서로 교차시키고 통합하는 가운데, 양자를 조화시킨 이순신의 전 면모를 탐구함으로써 그의 전쟁 수행과 그 성격, 그리고 그 의의를 드러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치적 실존구조를 가진 인간이 자기 실존을 실현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불멸성의 내적 기반으로서 확장적 사고

정치는 공동체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치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정치가 수단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정치행위를 인간존재의 실존방식과 연결시키면,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혹은 '인간은 무엇을 위해 행위하는가'라는 존재론적 물음과 직결된 정치행위의 근본적 의미가 드러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남에게 알려서 지속적으로 기억시키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타인 앞에 훌륭하게 나타나고 싶어 하는 욕구와 관련된 행위를 통해 드러나지만 그 나타남이 훌륭할 때 타인으로부터 찬사를 받게 된다. 정치행위에는 인간이 공동체에 밀어닥친 공동의 난제를 해결하여 그 구성원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공적 찬사를 받고, 그로 인해 명예를 얻게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명예는 자신만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외면한 상황에서는 얻을 수 없다. 그것은 공동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타인 앞에서 탁월성을 발휘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탁월성의 발휘는 타인과 함께 행위하는 공적 영역에 연원을 둔 불멸성의 욕구와 관련이 있다.⁵⁾

요컨대 공적행위의 촉진요소는 불멸성에 대한 욕망이며, 이것에 의해 당면한 공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에게 인정받고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멸성을 획득하는 데는 외적인 행위 이외에 다른 요소가 필요

4) Phillip Hansen, 1993, *Hannah Arendt: Politic, History and Citizenship*, Polity, p. 219.

5) 생계유지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치행위는 행위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행위하지 못하게 한다. 사리사욕을 떠나 활동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행위할 때 개인의 탁월성은 발휘된다. 김비환은 노동은 필요를 드러내고 작업은 숨씨를 드러내지만 행위는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김비환, 『축복과 저주의 정치학: 20세기와 한나 아렌트』, 한길사, 2001, 98-101쪽 참조). 그래서 탁월성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고 타인에게 자신의 개성과 특장(virtuosity)을 보여주는 고차적인 활동이다.

하다. 그 요소란 무엇이며 그것은 이순신에게 어떻게 작용했는가?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이한 이순신이 그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전투행위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갖추어야 할 선결조건이 있다. 다음은 정탁의 이순신 구명청원서에 나오는 말이다.

“전란이 일어났을 때 뛰쳐나가 앞장서는 용기에서는 이순신이 원균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군사가 아니었다면 원균도 공로를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피하지 않은 용기는 원균의 장점이었지만 적을 쫓아 버린 공로는 이순신이 원균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⁶⁾

위의 글로부터 원균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돌진하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는 원균의 이러한 인물됨을 좋아했다.⁷⁾ “선조에게는 기백과 용기가 무장의 최고 미덕이었고, 인품은 그 다음 문제였다. 선조는 원균의 저돌성과 용기를 선호했다.”⁸⁾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케스(Laches) 및 그의 동료들과 행한 소크라테스의 대화에서 말해주듯이,⁹⁾ 용

6) 정탁, 『신구차』, 정탁은 이순신이 감옥에 있을 때 선조에게 곡진한 글을 올려 이순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순신을 구명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7) 다음 선조의 말은 이것을 보여준다. “원균이 전쟁에서 패한 후로 사람들이 그를 헐뜯고 있으나 나는 원균이 용감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누가 한 가지 일을 잘하면 모두 그를 칭찬하고, 한 가지 일을 잘못하면 모두 그를 비난한다. 원래 영웅은 성패를 갖고 논할 수 없다. 원균은 내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당초 임진년에 이순신과 마음을 합쳐서 적을 칠 때 싸움이 벌어지면 반드시 앞장섰으니, 그가 용감하게 싸웠던 것을 알 수 있다.”(『선조실록』 권132, 34년, 1. 丙辰, 여기서는 『선조실록』, 민족화추진위원회 편집, 도문인쇄사, 1988 참조)

8) 박천홍, 『인간 이순신 평전』, 북하우스, 2005, 178쪽.

9) Plato, *Laches and Charmides*, trans by Rosamond Kent Sprague, The Bobbs-Merrill Company, 1973, pp. 13-49. 이 책 전반부 Laches에서는 용기에 대한 대화, 후반부 Charmides에서는 절제에 대한 대화 진행된다.

기라는 것이 전후사정도 살피지 않고 아무런 전략도 없이 돌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전쟁이든 직접적인 전투행위만이 승리의 요인은 아니며 그 밖의 여러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순신은 비록 졸병이라 하더라도 군사에 관한 일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와서 말하게 하여 군사적인 사정에 통하게 하였으며, 늘 싸움을 하려할 때 장수들을 모두 불러서 계교를 묻고 전략이 결정된 후에야 싸운 까닭으로 패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원균은 좋아하는 첩을 데려다 그 집(운주당)에서 살며 이종으로 율타리하여 안팎을 막아 놓아 장수들도 그의 얼굴을 보는 일이 드물었다. 그는 또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밤마다 술주정과 성내는 것을 일삼았고, 형벌이 법도가 없었으므로 군중에서는 수군거리기를 “만일 왜적을 만난다면 오직 도망가는 수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며 여러 장수들은 몰래 그를 비웃었으며, 또한 다시품의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호령이 행해지지 않았다.”¹⁰⁾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순신과 원균은 대조적인 성품과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분명히 이순신은 원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이순신의 불패 신화의 한 요소로서 정신활동이었다. 이순신은 전투행위 이전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정신활동, 즉 사유활동(thinking activity)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인물이었다. 즉 그는 내적 검토과정을 철저히 거쳤다.¹¹⁾ 그는 생각하면서 전투를 한 것이다. 사유활동

10) 유성룡, 『징비록』 2권, 남운수 역해, 하서, 2004, 183쪽; 『징비록』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원균은 도망하여 바닷가에 이르러 배를 버리고 언덕으로 기어올라 달아나려 했으나 몸집이 비둔하여 소나무 밑에 주저앉았는데 좌우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왜적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하여 죽음을 면했다 하는데 그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없다.”(유성룡, 『징비록』 2권, 2004, 185쪽); 노병천은 원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원균에게는 바로 눈앞에 있는 적과 용감히 싸우는 돌격형의 머리는 있어도 전체의 그림을 보는 전략적인 머리는 없었던 것이다. 그는 돌격대장으로서의 더없는 적격자다.”(노병천, 『이순신을 알면 일본을 이긴다』, 21세기 군사연구소, 2005, 232쪽)

은 사유능력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증대시키고 결합시키며¹²⁾ 지략을 발휘하고 전략을 세우는 등 전투와 관련된 사전활동에서 요구된다.

사유활동은 “나와 나 자신간의 소리없는 대화”로 그것은 현상세계의 사건에 대해 검토한다는 점에서 타인들, 더 나아가 현실세계와 유리된 활동이 아니다. 사유는 그 결과물인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현상세계로의 복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세계지향적인 활동”이다. 이것이 사유가 다른 사람과 함께 행위하는 데 필요한 이유이다.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함께 치르는 전투에서 지도자의 자질은 중요하다. 자질이라는 것은 내적 활동의 소산이며 사유활동이 작동한 결과 형성된 것이다. 자질이 훌륭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잘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동행위를 이끄는 데서 위력을 발휘한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가 있어도 참여자들이 ‘함께 행위함’, 즉 공동의 협력행위가 없이 제 각각 행위하거나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구성원의 협력과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이순신 승리의 비결 중 하나였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의 선천

11) 이순신의 일기에는 사념에 잠겨있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일기에는 시국에 관한 걱정이거나 한탄, 백성에 대한 염려, 전략에 대한 온갖 고심이 들어 있다.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중일 비가 왔다. 배뚝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산란했다. 이영님과 이어님이 왔다. 그들에게서 원영공(원균)의 비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한탄, 한탄스러웠다.”(『난중일기』 권1, 계사년 3월 2일(정사), 여기서는 『난중일기완역본』, 노승석 역, 동아일보사, 2005 참조). 이때 이순신 자신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었으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신수근은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순신이 내적으로 수기가 이루어진 겸전(兼全) 인격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신관근은 이순신이 문무를 겸비한 선비정신의 소유자라고 간주하고 이순신의 정신세계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선비정신과 자기수양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 자기반성이란 것 역시 쉽게 추정할 수 있다(신관근, 『한국의 선비정신과 이충무공의 리더십』,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4, 2쪽, 여기서는 <http://www.e-sunshin.go.kr>에서 인용).

12) 김동규, 박은미의 「사회적 실존의 가능성-아스퍼스 실존개념의 재해석」, 2007. 11, '사회와 철학 연구회' 발표논문 논평문, 2쪽.

적인 능력이었을까? 이순신의 경우 후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의 탁월한 리더십은 현상적 삶에서 요구되는 확장적 사고(擴張的 思考, enlarged thinking)¹³⁾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확장적 사고를 인간관계로 접속시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으로 확장함으로써 그를 고려하는 것이다. 확장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남의 심증을 들여다보고 그의 입장에서 자신이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사고의 소유자는 남이 희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된다.

확장적 사고는 확장된 심성(擴張된 心性, enlarged mentality)으로부터 나온다. 확장된 심성은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 놓고 타인의 실제적 입장이 아닌 가상적 입장과 비교면서 이루어진다.¹⁴⁾ 이것은 주관적인 요소, 즉 자기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배제함으로써 얻어진다.¹⁵⁾

확장된 심성이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전쟁(戰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은 다음에서 드러난다. “정신은 모든 각도에서 대상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관점을 미시적인데서 모든 다른 가능한 관점들을 차례로 획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각을 갖는 데까지 확장시켜 상상가능한 모든 관점들을 채택하고 각각의 관찰들을 모든 다른 사람들의 관찰을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기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은 상당한 정도의 느긋함과 융통성을 필요로 한다.”¹⁶⁾

13) 칸트는 자신의 미학이론인 『판단력 비판』에서 “확장적 사고”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바, 그것은 미적 판단을 하는 사람의 심적 상태를 보여준다. 한나 아렌트는 이 개념을 전유하여 정치판단의 중요한 개념으로 확립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 개념을 적용하여 이순신의 내면세계를 재구성한다.

14) 자신의 판단을 가상적 판단과 비교하는 데는 상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5) Hannah Arendt,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ed. by Ronald Beiner, Chicago Univ. Press, 1982, p. 44.

16) Kant, *Philosophical Correspondence*, pp.1759-99, ed. by Zeig, 73쪽. 여기서는 Hannah Arendt, 1982, p. 42에서 재인용.

전쟁에 임하는 장수가 가져야 할 요소가 바로 느긋함과 융통성인 바, 이순신은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임진왜란 발발직후 경상도 수군이 패해 지원을 요청했을 때 곧바로 출동하지 아니하고 20여일이나 늦게 출정했다.¹⁷⁾ 이것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지만,¹⁸⁾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순신은 다급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만 출전하는 사람이었다. 이순신은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기다림과 느긋함, 그리고 융통성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심성을 확장하는 데는 가상상황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요구된다. 이순신은 남의 입장을 잘 헤아렸는바, 그것은 그가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었다.¹⁹⁾ 이순신의 상상력은 시조로도 이어진다. 이순신의 시조는 뛰어난 문학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확장된 심성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순신의 「한산도가」라는 유명한 시조이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로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²⁰⁾

17) 이순신, 『임진장초』, 만력20년(임진년) 4월 27일 계분. 여기서는 이민용, 『임진왜란 해전사』, 2004, 77쪽에서 재인용.

18) 「이순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진실」, 3쪽(<http://blog.daum.net/fjuv3/1667347>, 검색일 2008.3.5).

19) 이순신이 부하들이나 백성의 입장을 짐작하고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해주었는바 이것은 상상력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글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이순신은 안골포의 섬주민들이 걱정스러웠다. 침입한 왜적들로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침착한 작전계획이 요구되었다.”(박선식, 『조선 대장부, 이순신』, 규장각, 1998, 222쪽)

20) 『난중일기』 권2, 을미년 8월 15일.

여기서 드러나는 이순신의 나라 사랑과 백성사랑의 마음은 정신을 확장한 결과였다. 이순신은 전장에서 혼자 고뇌에 찬 모습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경우가 많았는데,²¹⁾ 그 때마다 그의 마음은 백성과 국가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탈자야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가 사심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로 인해 그는 초탈적이고(detached) 무관심적인(disinterested)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 이런 태도는 그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순신은 고니시가 요시라를 간첩으로 이용하여 조선 측을 이간시키고, 일본을 공격하라는 선조의 지엄한 명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그가 지엄한 어명에 따르지 않은 이유는 그가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고 또 백성과 장병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임금도 살리고 총체적으로는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²²⁾

또한 그 일로 인해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직위해제 당하고 중죄인으로 몰려 죽음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으나 정탁의 노력에 의해 원균의 칠전량 전투 패배로 위기에 몰린 조선조정으로부터 백의종군을 하명 받고 구사일생으로 풀려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이에 연연해하지 않았다. ... 결정적인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것은 결정적인 것을 위해 모두 포기했다. 그것은 그가 사랑했던 나라였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었다. 이순신은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었다.”²³⁾ “억울하다면

21) 『난중일기』에는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달빛은 배위에 가득 차고 혼자 앉아 있으려니 이 생각 저 생각에 온갖 근심이 가슴을 치밀었다.” 『난중일기』 권1, 계사년 5월 13일(병인): “이날 저녁에 홀로 빈집에 앉아 있으니 마음을 스스로 견잡을 수 없다. 걱정이 더욱 심해져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했다.”(『난중일기』 권2, 갑오년 7월 12일(무자))

22) 박경식, 『이순신과 원균 갈등과 리더십』, 행림출판, 2005, 164쪽.

23) 노병천, 『이순신을 알면 일본을 이긴다』, 21세기군사연구소, 2005, 258쪽.

이보다 더 억울할 수가 없고, 섭섭하다면 이보다 더 섭섭할 수가 없는 누명이요 가혹한 형벌이었지만 그는 조금도 증오심을 품거나 임금을 원망함이 없이 묵묵히 형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충무공 사상의 절정이자 인간으로서 국가를 위한 충성심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²⁴⁾ 충이야말로 확장된 사고의 응결체였다. 이것은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한 가지 마음, 즉 사심뿐이었던” 원균과 대조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²⁵⁾

이순신의 확장적 사고는 일상적인 공직생활 중에서도 드러난다. 즉 이순신이 첫 부임지 동구비보에서 권관직을 마치고 훈련원 봉사에 임명되었을 때, 상관 병부랑 서익이 순서를 무시하고 자기의 지인을 승진시키려 하자 이순신이 그것을 무화시킨 사건,²⁶⁾ 이순신이 전라좌수영의 발포지역으로 발령받고 정4품의 수군만호 임무를 맡았을 때 전라좌수사 성박이 거문고를 만들기 위해 관아의 오동나무를 베게 하자 그것에 항명한 사건²⁷⁾은 이순신이 평상시 공직생활에서도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무관심적이고 초연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순신의 이러한 행위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이것들은 확장된 심성으로부터 연원한 것이었다.

이순신의 확장된 사고는 특히 국가의 위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살피고, 조율하며, 지휘함으로써 그 조화를 꿰뚫어볼 줄 아는 리더로서의 정신적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였다.

확장된 사고의 소유자였기에 전투 전체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긴 이순신은 전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다른 참가자들과 관계를 원활히 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유성룡은 이순신의 이러한 면모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4) 김성영, 2003, 36쪽.

25) 박경식, 2005, 179쪽.

26) 박선식, 1998, 57-58쪽 참조.

27) 박선식, 1998, 54-55쪽 참조.

“이순신은 재능과 재간도 뛰어났다. 군기를 확립시키고 사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그 뒤를 따랐다.”²⁸⁾ 이순신은 지략을 갖춘 병법가이기도 했지만 확장적 사고를 토대로 인품을 갖춘 덕장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동료, 부하나 백성을 가버이 여기는 다른 용장들과 달리 전장 밖 백성들의 안위나 그들에 대한 배려심도 각별했다.²⁹⁾ 충무공은 전쟁의 목적이 적군을 쳐부수는 것에 있지 않고, 그보다는 오히려 백성을 보호하는 목적임을 너무도 잘 알고 또 그대로 실천했던 것이다.³⁰⁾

이처럼 이순신은 항상 ‘남’의 입장으로 자신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하들, 더 나아가 백성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다.³¹⁾ 이순신의 이러한 면모는 부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믿고 추종하는 힘이었다. 조선 대신 이덕형은 이순신에 대해 임금 선조에게 다음과 같이 진언한다.

28) 『선조실록』, 권106, 31년, 11. 여기서 말하는 재능과 재간에는 전술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다루고 감화시키는 능력도 포함된다.

29) 다음은 ‘견내랑과왜병장’의 장계에 나오는 글이다. “그 산골에는 조선백성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배를 태워버려서 궁지에 빠진 도둑이 되게 한다면 숨어 있던 우리 백성들이 그들에게 비참한 살육을 면치 못할 것 같아서 잠깐 10리쯤 물러나와 밤을 세웠습니다. 이순신의 부하사랑과 백성사랑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노병천, 2005, 238쪽): “이순신은 민폐 끼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박선식, 1998, 105쪽): “지금은 나랏일이 어지럽고 백성이 살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수군의 관할지역으로) 들어가 농사짓게 하더라도, 말먹이는 일에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먹이고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모두 다 이로울 것이라 망령되이 생각합니다.”(충무공전서 3권, 여기서는 박선식, 1998, 253쪽에서 재인용): “군량의 나머지 곡식을 내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자고 임금에게 청했을 때 이를 허락했다.”(유성룡, 2004, 153쪽)

30) 신관근, 2004, 15쪽.

31)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변경의 군무에 성실하던 이순신은 한 병사의 우울함을 읽고 까닭을 묻자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집이 멀어서 갈 수 없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이순신은 상당한 군사에게 말 한필을 내어주고 장례식에 참석하게 해주었다. 이순신은 군마관리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부하의 고충처리를 우선하고자 했던 것이다 (박선식, 1998, 64-65쪽 참조).

“신이 본도에 들어가 해변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 모두가 그를 칭찬하며 한없이 아끼고 추대했습니다. … 참으로 애통합니다. 첩보가 있던 날 군량을 운반하던 인부들이 이순신의 전사소식을 듣고서 무지한 노약자라 할지라도 대부분 눈물을 흘리며 서로 조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감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³²⁾

당시 이순신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것이 이순신으로 하여금 부하와 동료, 백성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열악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했던 것이다.

또한 이순신의 확장된 사고는 전략이나 전술을 짤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순신은 운주당이란 참모본부를 설치해놓고 거기서 장병들과 함께 자고 누우며 토론하고 했을 때 비록 부하들이나 심지어 종들의 의견까지도 좋은 것이 있으면 채택했으며 또 상하없이 같이 앉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³³⁾ 이처럼 이순신은 남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개방적이었다. 그는 전략이나 전술을 결정할 때도 다른 사람의 관점을 충분히 참작하고 자신의 관점을 검증받았던 것이다. 그가 내린 결정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적 조건을 제거하고 주관성을 벗어나 불편부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작전회의에 참석한 동료나 부하들도 그 결정과정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그때그때의 전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참여와 승리에의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는 이순신의 확장적 태도와 사고는 전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투 참여자, 심지어 전장 밖의 백성들까지도 전투에 끌어들이므로써 엄청난 결집력을 가져왔다. 이순신은 타인과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이 왜 적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했고, 그 결과 그들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한꺼번에 분출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전투시 행하는 전략이나 전술 역시 동료나 부하들의 마음을 잘 움직였을 때 전투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원균의 행동과는 대조적이다. 다음은 ‘옥포파왜병장’의 장계내용이다.

“같은 소속 거제 현령 김준민은 멀지 않은 바다에서 연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주장인 원균이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 소행이 심히 해괴합니다. 조정에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³⁴⁾

위의 인용문은 원균이 부하나 동료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열린 마음이 없이, 독단에 의해 전투를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훗날 도체찰사 이덕형은 칠전량 전투 당시 원균이 고립되어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이순신 휘하에서 서로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³⁵⁾ 원균의 말처럼 당시 수군장들은 무모한 작전에 반감을 품고 있었고, 또한 원균과 부하 장수들 사이의 불화도 효율적인 작전을 방해하고 있었다.³⁶⁾

반면에 이순신은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략을 짤 때 발휘되었던 이 확장된 사고가 부하나 동료들을 감화시키고 설득시키어 전략이나 전술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확장된 사고는 이순신 지략의 중요한 보고(寶庫)였던 셈이다.

리더의 리더십은 ‘남들’의 힘을 한곳에 모으는 능력, 그리고 남의 소질과 능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한꺼번에 분출하게 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

32) 『선조실록』 권107, 31년 12월 7일(무오).

33) 신관근, 2004, 17쪽.

34) 이순신 역사연구회, 『이순신과 임진왜란, 삼가 적을 무찌른 일로 아뢰나이다』, 비봉출판사, 2007, 97쪽에서 재인용.

35) 『선조실록』 권133, 1월 17일(병진).

36) 박천홍, 2005, 241쪽.

러한 리더십은 그가 '남'이 어떤 상태의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남'과 어떻게 관계하느냐는 리더십의 중요한 관건이며 그때 그의 내면적 심성과 태도는 중요한 지반이었다. 이순신은 내적 자질을 갖춘 훌륭한 리더였다.

이순신은 확장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뛰어난 결단력의 소유자였다.³⁷⁾ 이순신이 결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남들과의 소통은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초석이 되었다. 그는 확장된 사고를 토대로 소통을 통해 결단을 내리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3. 이순신의 전투행위와 그 성격

이 장의 목적은 이순신이 어떻게 전투를 했고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순신은 확장된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다급한 상황이나 난관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무기와 함선의 개발과 개선, 사전정보수집, 자연지형을 지혜롭게 이용할 줄 아는 능력, 우뢰와 같이 힘있고 장중하며 민첩한 전투행위는 이순신을 불멸의 존재로 격상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었다.

일본의 도고는 이순신을 나폴레옹의 침략을 분쇄시키는데 성공한 넬슨 제독과 비견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였고,³⁸⁾ 또 다른 이는 이순신을 이탈리아의 한니발, 프랑스의 나폴레옹, 알렉산더와 비견되는 세계적인 인물이

37) 김효수는 이충무공의 리더십의 특성을 ① 충효정신, ② 책임완수, ③ 용기, ④ 결단력, ⑤ 통찰력, ⑥ 판단력, ⑦ 창의력, ⑧ 정직성, ⑨ 청렴성, ⑩ 솔선수범, ⑪ 준법정신, ⑫ 직무지식, ⑬ 희생정신, ⑭ 인내심으로 정리하여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제시하였다(신관근, 2004, 12쪽).

38) 박천홍, 2005, 19쪽 참조.

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어떤 면에서 그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위대했다. 다른 영웅들은 국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등에 업고 싸웠다. 반면에 이순신은 자신의 권좌를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끊임없이 덕망있는 신하를 의심하고 옹아매려는 선조와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당쟁으로 얼룩진 조정대신들의 틈바구니에서 '내부의 적'과 싸우며 전투를 수행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웅들과 달리, 이순신은 스스로 농사를 지어 군량미를 조달했고 무기를 스스로 개발했으며, 전함 역시 스스로 주조했다.

이런 조악한 상황에서 이끌어낸 명량대첩은 상상을 초월한 빛나는 승리였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우선 명량대첩을 중심으로 이순신의 전투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정유재란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2차 침입시 이순신에게 전투를 수행할 외적 여건이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 무렵 칠전량 전투에서 원군이 전함과 수군을 모두 침몰시킨 후, 조정에서는 수군을 폐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을 내렸으나 이순신이 "신에게는 아직도 열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장계를 올려 수군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이었다. 이순신에게 남은 것이라곤 배 13척(1척은 나중에 확보한 것임)과 병사 1,000여명이 전부였는데 그 상황에서 이순신은 다급하게 전투에 임해야 했다.

전투 직전 이순신은 울돌목을 등지고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울돌목은 좁은 수로와 급조류 그리고 소용돌이로 형성된 전형적인 사지(死地)였기 때문이다.³⁹⁾ 노병천에 의하면 그는 울돌목을 사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이 좁기 때문에 왜군이 한꺼번에 덤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축차적인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영을 우수영 앞바다로 옮겼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탁월한 전략이었다. 그런 다음 장병들을 불러놓고 연설을 하였다.

39) 노병천, 2005, 116쪽. 또한 노병천은 이순신이 울돌목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조류가 바뀌는 틈을 이용해서 적을 격파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일본에게 울돌목을 내준 상태에서 기습을 당함으로써 싸워 이겼다고 주장한다.

“병법에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고 했으며,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사람이라도 두렵게 한다’고 했음은 지금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 장수들이 살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군벌으로 다스릴 것이다. 조금이라도 너그럽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재삼 엄중히 약속했다.”⁴⁰⁾

비장함이 배어 있는 이 연설은 병력의 열세에 투지를 상실한 병사들의 가슴을 파고들어 승리의 투지를 불러내었다. 국가와 부하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규율을 엄격히 했는바 그것은 모두 승리와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삶이든 전쟁이든 우연성과 예측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긴 하지만, 다음 날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이순신은 울돌목에 진을 치고 일본 수군을 기다리려 했는데 예상 밖으로 왜군이 먼저 울돌목을 선점하는 바람에 울돌목을 놓치고 기습을 당한 것이다.⁴¹⁾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비록 짧지만 그날의 전투상황이 이 얼마나 치열하고 급박했는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이른 아침 망군이 와 보고하기를, ‘적선이 무려 2백여 척이 명량을 거쳐 곧바로 진치고 있는 곳으로 온다’고 했다. 여러 장수를 불러 약속을 밝힌 다음 닻을 들고 바다로 나가니, 적선 1백 33척이 우리 배를 에워쌌다. 대장선이 홀로 적선 속으로 들어가 포환과 화살을 총우같이 쏘아내건만 여러 배들은 바라보면서 진군하지 않아 사태를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배위에 있는 군사들이 서로 돌아보며 질려 있기로 나는 부드럽게 타이르되 ‘적이 비록 천 척이라도 감히 곧바로 우리 배에 덤벼들지 못할 것이니 조금도 동심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쏘아라’고 했다. 그리고 여러 배를 돌아다보니 이미

1마장 가량 물러났고 우수사 김억추가 탄 배는 멀리 떨어져 가물가물했다. 배를 돌려 바로 중군 김응함의 배로 가서 먼저 목잘라 효시하고 싶었지만 내 배가 머리를 돌리면 여러 배가 더 물러나고 적선이 달려들게 되어 사세가 낭패 될 것이라 중군에게 군령 내리는 기화 초요기를 세우니 김응함의 배가 가까이 오고, 거제 현령 안 위의 배도 왔다. 나는 뱃전에 서서 친히 안 위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군벌에 죽고 싶으냐’하고 다시 불러 ‘안 위야, 군벌에 죽으려느냐, 물러가면 살 듯 싶으냐’ 했더니 안 위가 황급히 곧바로 들어 싸우려 할 때 적장의 배와 다른 2척선이 안 위에 배에 달라붙고 안 위의 격군 칠 팔 명이 물에 뛰어 들어 해엄을 치니 거의 구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배를 돌려 바로 안 위의 배가 있는 데로 갔다. 안 위 배 위의 군사들은 죽기를 한하여 마구 쏘아대고 내 배의 군관들도 빗발같이 쏘아대어 적선 2척을 남김없이 모조리 섬멸하니 천행이다. 우리를 에워쌌던 적선 30척도 깨트림을 당하니 모든 적들은 당해내지 못하고 다시 범접해 오지 못했다.”⁴²⁾

이날의 일기는 이순신의 능력이 최악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음을 보여준다. 그가 부하들에게 적의 수적 우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한 당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전투에서 침착성과 초탈성은 승리의 관건이었다. 겁에 질린 병사들을 다독거리거나 호령하여 전선에 뛰어들게 하고, 그들과 더불어 몰아치듯 맹렬히 싸우는 그의 모습은 리더십의 극치요, 행위의 탁월성의 표현이며 집중력의 결정판이었다 하겠다. 이순신은 정지해있을 때는 활처럼 충만한 힘을 비축했다가 행동할 때는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박력이 있는 사람이었다.⁴³⁾ 여기서는 어떤 전략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오직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뿐이었고 그때 용기와 침착성, 그리고 불굴의 정신이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이순신이 부하를 구하기 위해 뱃머리를 돌려 부하를 구하러 가는 부하사

40) 『난중일기』 권4, 갑오년 9월 15일(계묘).

41) 노병천, 2005, 15쪽 참조.

42) 『난중일기』 권4, 전유년 9월 16일(갑오).

43) 박천홍, 2005, 310쪽.

량의 마음이나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맹렬히 공격한 행위 역시 용기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담대했는지를 보여준다. 말과 행위, 그리고 자유가 가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본래의 용기는 ... 위대하다.⁴⁴⁾ 칸트는 미학에서 용기를 아름다움, 즉 숭고미로 파악했다. “야만인조차 최고의 경탄을 보내는 대상은 무엇인가? 아무 것에도 움츠러 들지 않고,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따라서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다. ...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군인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존경심은 남아 있다. ... 이것은 바로 위협을 뚫고 나가는 그의 불굴의 정신이 그러한 것에서 인지되기 때문이다. ... 전쟁조차도 숭고한 어떤 것을 갖는다.”⁴⁵⁾ 상대를 죽여야 하는 전장에서 이순신이 발휘한 용기는 숭고한 것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순신은 최악의 극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쟁긴 불세출의 영웅이었다. 그의 위대성은 그가 기습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데 있다. 이런 이유로 노병천은 명랑해전이 한산해전과 함께 단연 독보적인 압권의 승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명랑대첩을 한산해전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⁴⁶⁾

그는 전선과 군사의 수적인 열세로 인해 패배가 예상되는 싸움에서도 적당히 싸우는 바가 없었고,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것은 그가 목표 의식이 얼마나 투철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여준다. 명랑대첩으로 인해 일본의 조선 서쪽 진출은 좌절되었다. 그것은 조선 수군의 승리의 결과였다.

두 번째 다를 전투로서, 명랑대첩에 앞서 일본의 1차 침입시(임진년) 있었던 한산해전은 세계4대 해전 중 하나이다. 이 해전 역시 전쟁의 흐름을

44) Arendt, 1958, p. 187.

45) Kant, *Judgement of Critique*, trans. by J. H. Bernard, Jafner Press(NY), 1951, §28.

46) 노병천, 2005, 17쪽 참조.

바꾸는 대첩이었다. 조선 전선은 58척, 왜적선이 73척이었다. 이 해전에서 조선수군은 적선 47척을 불태우고 12척을 나포했으며, 주전과 부장 왜장들 중 다수가 탈출, 도주, 전사, 자결하였다.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순신이 한산대첩을 거둬 일본의 수륙병진 전략을 분쇄하였고, 더 나아가 전라도와 충청도가 보전되어 이를 바탕으로 조선이 중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견내량이 지형이 매우 좁고, 또 암초가 많아서 판옥전선은 서로 부닥치게 될 것 같아서 싸움하기가 곤란했다. 그리고 적은 만약 형세가 불리하게 되면 기습을 타고 물으로 올라갈 것이므로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여 모조리 잡아버릴 계획을 세웠다.

한산도는 사방으로 해엄처나갈 길이 없고, 적이 비록 물으로 오르더라도 틀림없이 굽어 죽게 될 것이므로 판옥선 대여섯 척으로 먼저 나온 적을 뒤 쫓아서 엄습할 기세를 보이게 하니 왜적들도 따라 나왔다. 그때야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학익진을 펼쳐 일시에 진격하여 각자 지자, 현자, 승자 등의 총통들을 쏘아서 먼저 두 세 척을 깨트리자, 여러 배의 왜적들이 사기가 꺾이어서 물러나므로 여러 장수와 군사와 관리들이 승리한 기세로 흥분하며 앞 바다로 돌진하면서 화살과 화전을 잇달아 쏘아대니 그 형세가 마치 바람처럼 우레처럼 적의 배를 불태우고 적을 사살하기를 일시에 다 해치워 버렸다.”⁴⁷⁾

이순신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장수였다. 이 해전에서 사용한,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적을 끌어들이는 유인술은 전투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순신은 견내량이 좁은 지역인데다가 암초가 많아서 대형전함이 이동하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아래 적을 기만해서 유인한 것이었다. 이날의 전투도 철저한 정보 수집을 통한 정보 분석으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47) 『난중일기』 권1, 임진년 7월 8일(경신).

적절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최선의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순신이 학익진을 편성하여 포탄과 총통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필요한 것은 집중력이었다. 전광석화와 같이 몰아치는 집중력은 적을 혼란에 빠트리기에 충분했다. 또한 적을 원하는 장소에 몰아넣은 다음 사용한 “학익진은 스페인 무적함대의 독수리 진형과 비슷한 전술인데, 이 적전 대회전은 아주 큰 위협을 수반하는 작전으로 공격해오고 있는 적전에서 일제히 선수를 돌린다는 것은 고난도의 함대기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훈련을 받지 않은 함대는 이와 같은 적전 대회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산해전의 승첩에 대해서 많은 전사가들과 해전전문가들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⁴⁸⁾ 이 해전을 승리로 이끈 것은 유인술과 학익진 전법이라는 전략의 탁월성이었다. 이것이 이 전투의 위대성이다.

두 번째 위대성은 모든 참여자들의 ‘일치되고 조화로운’ 행위에 있다. 포탄과 총통의 집중적인 발사는 모든 참여자들이 합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신을 한곳으로 집중하여 응결된 모든 에너지를 일제히 분출시켰다. 통일과 단결, 합심보다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 이것은 이순신이 실제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전체의 조화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휘를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밖에 이 한산도 해전의 승리의 요인으로는 판옥선이라는 조선 전함의 우수성과 거북선의 맹활약, 탁월한 지도력 및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다져진 수군의 침착성을 들 수 있다. 첫째 이순신은 학익진이라는 전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만큼 병법에 조예가 깊었으며, 그 위에서 학익진 전법을 상황에 맞게 개조해 실전에 적용해 보았는바, 그는 창의적 정신의 리더요, 대담성을 지닌 리더였다. 둘째, 그는 몸으로 직접 부딪쳐 전투를 수행함으로써 부하들을 전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승리에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술

48) 박경식, 2005, 107쪽.

선수범형 리더였다. 셋째, 그는 전선의 중심에서 지휘하면서 전투상황 전체를 살피 물러나고 나설 때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력을 갖춘 리더였다. 개화기에 험버트는 한산해전을 살라미스 해전에 비유했다. 한산도 해전의 승리로 인해 일본은 공격적 전략을 버리고 방어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전쟁기획을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기습을 당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건 준비된 상황에서건, 이순신의 초탈성과 술선수범, 전광석화같이 몰아치는 전투방식은 부하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내었다. 어느 상황에서든 그는 뛰어난 리더십, 즉 주도권이나 창발성을 발휘하여 부하와 장수들로 하여금 그들의 잠재된 역량을 한 곳으로 응집시켜 그것을 분출시키게 했고 그로 인해 거칠고 야만적인 광풍 속에서 조선과 백성들을 지켜냈다.

명량대첩에서의 이순신과 그의 장병들의 전투행위는 예상을 벗어난 승리, 즉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인 의미로 기적적인 사건이었다.⁴⁹⁾ 이것은 자신의 모든 사적인 가치를 초월하여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염려하는 사람이 자신을 죽음에 내 던진 행위로부터 나올 수 있는 행위였다.

명량대첩의 승리는 이순신의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불굴의 정신과 용감한 전투행위는 이순신이라는 존재를 신적 존재로 격상시키기에 충분한 명장면이었으며, 이 광경에 열광한 조선백성과 그 후손들은 두고두고 그의 이름을 기억했던 것이다. 또한 한산해전의 학익진 전법은 전법의 극치를 유감없이 보여준 가장 빛나는 명장면이자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또한 명량대첩과 한산해전 이외에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 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과 함께 맞이한 이순신의 죽음 장면은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간 삶의 비극적 차원을 보여준다. 그래

49) 한나 아렌트는 ‘기적’을 정치적 개념으로 사용하는바, 그녀는 기적이 신의 능력이 아니라 일상적 삶을 뛰어넘어 예측불가능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탄생과 새로운 시작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한다(Arendt, 1958, p. 247 참조).

서 칸트는 인간사(human affairs)는 우울한 우연성(melancholy haphazardness)이 지배하는 영역이라 했다. 또한 그의 비극적 삶은 세상의 험한 광풍을 온몸으로 막아낸 인간의 숭고함을 느끼게 해준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순신의 전쟁수행행위는 확장된 사고를 토대로 한 것으로, 그것은 '내적 삶'과 '외적 삶'의 총집약체였다. 즉 이순신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고와 행위를 교묘하게 교차시키고 통합했다. 그는 한편으로 실제 전투에서 뛰어난 전투능력을 가진 무인 중 무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의 심증을 들여다보거나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뛰어난 통찰력을 통해 '생각하는' 전투를 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소통적 이성의 소유자였던 것이다."⁵⁰⁾ 그는 삶의 중심을 항상 백성에 두었고,⁵¹⁾ 이러한 정신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이처럼 이순신은 전투를 할 때도 타인과 더불어 혹은 타인과의 조화에 신경썼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who is he)를 드러내게 되었는데, 이 드러내는 행위가 인격과 관련이 있다.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한 행위이지 무엇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억지로 떠맡는 것이 아니다. 이순신은 기꺼이 해체된 현실에 뛰어들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인식했으며, 그 위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냈던 것이다.

50)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이 부하나 동료들과 전투에 대해 의논하거나 회의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는 소통적 중시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난중일기』 권1, 계사년 6월 25일(무신), 권2, 을미년 10월 10일(기유), 권3, 병신년 5월 16일(임자)).

51) 다음은 이러한 이순신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적선을 깨트리고 적선을 무찌르는 동안에, 육지에 내려 마을로 도망간 적군이 있을 때 거기에 남은 빈 배들을 모조리 불질러 태워버리거나 노획해 가지고 와서 전과를 올리기에 힘쓰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공은 남은 배 몇 척을 그대로 두라고 하면서, '적군이 타고 나올 배가 없으면 마을로 올라가 백성들에게 큰 해를 입힐 것이다. 짐짓 배를 남겨 두어서 놈들이 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쟁의 목적을 전과로 올리는 것에 두는 보통 군인들의 사고방식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충무공은 어디까지나 백성보호의 목적 그것 때문에 전쟁을 했던 것이다. ... 그것은 다만 백성보호, 동포사랑, 그것이 공의 사명이요 정신이었기 때문이다."(신관근, 2004, 15쪽)

그는 그때그때 함께함(being together)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고유성을 보여 주었다.

이순신의 전투행위는 타인을 전제로 타인을 배려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인격적인 행위였다. 박천홍의 말대로, "이순신을 빛나게 했던 것은 전략적 기지나 신중성, 장기적 안목뿐만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적 품성과 실천성이 그의 참된 미덕이었던 것이다."⁵²⁾ 인격의 특성은 타인과의 결합을 통해 가능한 현시능력,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을 통해 드러나는바, 이순신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다. 전장에서의 이순신의 이 인격적 행위는 공적 정신(공동성)과 행위의 탁월성(개인성)이 결합되어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다.

4. 이순신의 전투행위의 의의: 인간적 삶의 실현과 역사성

행위를 통한 인격의 현시는 의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타인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행위자 자신에게는 은폐되기 쉽고 행위자와 마주한 사람에게만 보인다. 그런데 "인격의 표현은 아무리 뚜렷이 보일지라도 말로 명료하게 표현할 수는 없고", "신탁의 믿기 어려운 계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⁵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행위는 주체를 계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행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그 평가가 행위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행위가 여타의 모든 인위적 생산품보다 월등하게 엄청난 지속능력을 가

52) 박천홍, 2005, 310쪽.

53) Arendt, 1958, p. 181.

진다는 사실은, 행위과정에 힘을 부여하는 행위의 전도불가능성과 예측불가능성의 짐을 인간이 감내할 수 있기만 하다면, 인간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 행위하는 자는 자신이 무엇을 수행하는지를 결코 알지 못하며, 그는 결코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죄’를 범하여, 그가 시작한 과정은 하나의 행위나 사건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간은 알고 있었다. 또한 행위의 의미는 행위나 사건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행위하지 않는 역사가가 회고할 때 드러난다.”⁵⁴⁾ 그리하여 자신의 위대한 행위로 목숨을 잃는 자만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능한 위대성의 확고한 주인으로 머물 수 있다.⁵⁵⁾ 모든 역사과정을 밝혀주는 빛은 역사의 종점에서만 나타나며 모든 참여자들이 죽었을 때 빛난다.⁵⁶⁾

이순신의 행위의 의미는 두고두고 역사가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함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들은 공동체에 유익한 의미를 가져다주었다. 그는 꺼져가는 조선의 불씨를 살려내어 그 생명을 지속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조선을 지켜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조선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주었다. 그 의미란 무엇인가?

7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 전쟁의 영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에 출병하지 않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에 출병한 도요토미군, 우키다 히데이에군을 격파하고 국내를 정복하여 정권이 바뀌고 중앙집권제를 수립했고, 명나라는 임진왜란의 후유증으로 국가재정이 파탄해져 여진족이 세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한 결과 명·청 교체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순신의 위대한 행위는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해냈고, 더 나아가 조선의 재건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요컨대 이순신의 위대한 승리는 조선재건의 출발점이 되었다.

54) Arendt, 1958, p. 233.

55) Arendt, 1958, p. 193.

56) Arendt, 1958, p. 193.

첨언하면 조선은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신분제의 해체, 유교사상의 약화, 동북아 국제 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야기되었다. 특히 경제적 부문에서 민생파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국가 재정 역시 열악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다방면으로 나타나게 되어 비변사의 강화와 오군영제와 훈련도감을 비롯한 군사기구의 개편, 조세제도의 개편, 경지복구가 이루어졌다. 대동법은 민생안정과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또한 정부는 신분제의 이완에 대처하기 위해 신분질서를 재구축하려 하였다. 국제적인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평화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는데, 이는 내부개혁을 위한 것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면서 민족정신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통해 조선 후기사회로 들어섬으로써 오늘을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순신의 행위의 공적 의미는 이순신의 죽적이 조선의 운명을 지속시켰다는 사실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 즉 조선의 재건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순신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불멸성을 얻었다.

원래 불멸성(immortality)은 “영원한 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양식”을 통해 확보되는 것으로, “시간 안에서 영속하고 지상과 이 세계에서 죽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⁵⁷⁾ 그것은 현상세계에서, 즉 인간사 영역에서 공동행위를 통해 확보되는 가치이다. 이순신이 얻은 불멸성 역시 현실세계에 뛰어들어 탁월한 행위를 함으로써 획득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을 지켜내고 조선의 재건을 가져온 이순신의 행위는 공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막을 내린 것인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순신이 개인적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는 공동의 기억을 통해서 무상하기만 한 행위를 치료하여 자신의 불멸의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기억되게 한 것이다.⁵⁸⁾ 그는 필멸에서 불멸로 나

57) Hannah Arendt, 1958, pp. 17-18. 여기서 아렌트는 불멸성과 영원성을 구분한다.

아감으로써 신적 속성을 부여받았는 바, 이것은 사적 영역에서 공적 가치의 영역으로 넘어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순신이 신적인 속성을 부여받았다할지라도, “그는 범접할 수 없는 영웅이 아니었다. 인간의 경지를 넘은 초인이나 신은 더구나 아니었다.”⁵⁸⁾ 그는 고대 그리스 신들처럼 현실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질투도 하고 사랑도 하며 유익한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신적 위치로 격상시킨 인물이지, 타고난 천재였던 것은 아니다. 그의 불멸성은 인간의 현실세계와 유리된 세계에서 자동적으로 확보된 특권이 아니라 그가 현실세계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뛰어들어 특출한 활약을 함으로써 스스로 획득한 가치였던 것이다.

그는 기념비적인 행위를 통해 조선의 해체된 현실을 통합함으로써 조선 사람들이 그러한 현실과 화해하게 해주었고, 그것에 대한 공적 찬사가 보상의 전부였던 셈이다. 아렌트의 말대로, 사후의 명성은 단순한 상품처럼 전수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또한 그것은 팔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적인 전투행위가 그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추정해볼 수 있다. 이순신 행위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차원의 의미는 연약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억될 수 있는 훌륭한 말과 행위⁶⁰⁾를 통해 그의 삶이 헛되지 않고 유의미하게 해주었다는데 있다. 그는 자기를 상실하지 않고 사회적 실천을 한 사람이다. 그에게 전장은 “시민의 책임감이 발휘되는 단지 정치적 활동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대한 행위가 나타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전장에서의 특출한 행위로 인해 사람들이

58) Arendt, 1958, p. 197.

59) 박천홍, 2005, 6쪽.

60) 인간의 행위와 말은 그것을 행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점에서 연약하다. 따라서 인간사는 그러한 말과 행위로 구성되기 때문에 연약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Arendt, 1958, pp. 188-192 참조).

그에게 보내준 공적 찬사는 그가 ‘진정한 인간존재’임을 입증해주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그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실현한 사람, 즉 자기 희생을 통해 자기를 실현한 사람임을 증명해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상실한 사회적 실천은 아니었다. 이순신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의미로 채우고 간 자유의 인간이었다는 점에서 결국 그는 자기도 지킨 것이다. 그런 이유로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에 있어서도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을 ‘진정한 삶의 영웅’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의 불멸성은 그의 실존의 보증서였던 셈이다.

(원고투고일 : 2008. 2. 1, 심사완료일 : 2008. 3. 24)

주제어 : 불멸성, 확장적 사고, 확장된 심성, 인격적 행위, 조선의 재건, 삶의 의미실현, 피해자, 지휘, 전투, 면모

<ABSTRACT>

The Humanistic Approach to Admiral *Yi Sun-sin's* Battle Accomplishments

Kim, In-so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what are *Yi Sun-sin's* human aspect and meaning of his action, which were made up the harmony of inner mentality and action.

Yi Sun-sin was the heroic figure who devoted himself to national salvation. Despite he was an outstanding warrior, he was always the human being who also lived with a great number of people in theater of war.

Because of that, in planning strategy or carrying out combat, he centered his attention on the state and the people. *Yi Sun-sin's* goal was to win by limiting casualties, as possible.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enlarged thinking was inside him. And it was based on the enlarged mentality which extends one's mind to other's place.

Not only it produced a good leadership in a actual fight, but not had him forget his goal, and had him maintain the deathlessness, and had him exert the unflinching courage as well, in the case of an emergency or urgent situation.

Thus *Yi Sun-sin* was the general with whom the inner and the outer worth agreed and his great action was called deeply by the inner factors. In performing a battle, we can find *Yi Sun-sin's* human and personal aspect in that he always heard other's saying and was thoughtful of and took care

of other's mind and sought for action in concert with other. He performs also humanly and personally a battle.

Not to mention, the human and personal attitude, which took care of others and sought for the harmony with them rather than alonely fighting, regardless of their position, brought a myth of all wins and no defeats in the battle.

This human and personal combat accomplishment saved *Joseon* and endowed her with vital power to maintain 300 years of kingdom later.

Besides, he is a man who realized the cause of life, the heroic figure of authentic life, in that it have inherited his great name on posterity by brought about the immortal fame to himself.

Key Words : Enlarged Thinking, Enlarged Mentality, Personal Action, Cry-stallization of Life's Cause, Rebuilding of Joseon, Immortality, Casualties, Leadership, Battle, Personal Aspect